



Market Index / 13일

코스피지수 ▼	2372.40 -0.62	코스닥지수 ▼	715.16 -0.06	유가(WTI, 달러) ▲	73.17 +2.15	환율(원)	1USD 100¥	살때 1326.82 964.50	팔때 1281.18 931.34	1EUR 1403.30	살때 1403.30 196.12	팔때 1348.54 177.46
---------	------------------	---------	-----------------	---------------	----------------	-------	--------------	-------------------------	-------------------------	-----------------	-------------------------	-------------------------

가구 자산 10년 새 갑절... 부동산 편중

통계청 제주사무소 '제주사회의 10년 변화상' 발표
작년 5억6760만원 중 실물자산 85%... 전국보다 7.5%p ↑
주민등록인구 17.5% 증가에도 초·중·고생은 모두 감소

제주지역 가구 자산이 최근 10년 사이 갑절 늘었지만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보다 훨씬 낮았다. 또 주민등록인구는 10년 사이 20% 가까이 증가했는데 출생이 감소 등으로 초·중·고와 대학생 수는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 수는 20% 이상 줄었다. 해녀 수도 감소세가 뚜렷한데, 70대 이상 비중은 60%가 넘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는 최근 10년 동안의 제주사회의 인구, 소득, 교통, 관광 등의 변화상을 담은 '2022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

늘'을 13일 내놨다. 2021년 기준 도내 가구의 평균자산은 5억6760만원으로 10년 전인 2011년(2억8157만원) 대비 101.6% 증가해 전국평균(5억253만원)보다 많았다. 가구 자산 중 금융자산은 8528만원으로 15.0%를 차지하고, 나머지 85.0%(4억8232만원)가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이다.

10년 전(금융 18.7%(5255만원), 실물 81.3%(2억2902만원))에 견주면 금융자산 비중은 감소하고, 실물자산 비중은 증가해 부동산가격 상승이 총자산을 늘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국평균 금융자산(1억

1319만원)과 실물자산(3억8934만원) 비중은 각각 22.5%, 77.5%로 제주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7.5%포인트(p) 높다.

지난해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67만6759명으로 10년 전보다 17.5% 증가했다.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더 많아 인구가 꾸준히 순유입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순이동(전입-전출) 인구는 3917명으로 2011년(2343명)보다 많지만 2015~2017년 3년 연속 순이동인구가 1만4000명이 넘었던 데 견주면 2018년 이후 증가폭은 둔화 추세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6.3%로 10년 전보다 3.8%p 증가했고, 14세 이하 비중은 13.9%로 3.6%p 감소했다. 15~64세 비중은 0.1%p 줄어든 69.7%다.

주민등록인구 증가 속에서도 출생아 수가 2011년 5628명에서 지난해 3728명으로 33.8% 감소한 여과

으로 초등학교부터 학생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초등학교생수는 4만1328명으로 10년 전보다 1.9% 감소했고, 중학생 수는 1만9989명으로 18.6% 줄었다. 고등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23.0% 감소한 1만8391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도 35.0명에서 25.4명으로 줄었다. 전문대학생 수는 1만2541명, 대학생 수는 1만4935명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1.7%, 11.0% 감소했다.

도내 해녀 수 감소도 두드러졌다. 2011년 4881명이던 해녀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3437명으로 10년 새 29.6%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해녀가 30명, 40대 53명, 50대 218명, 60대 990명, 70대 이상 2146명으로 70대 이상 해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 46.4%에서 지난해 62.4%로 확대됐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도가 지난 7-8일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한 관광설명회.

“외국인관광객 유치 핵심은 직항노선”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주관광설명회 관심 높아

제주도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대형 여행사와 항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주관광설명회에서 말레이시아 관계자들은 청정 제주와 함께 한국의 드라마·영화·음악 등 K-콘텐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관광객을 제주로 유치하려면 직항노선이 무엇보다 중요해 코로나19 이전에 운항됐던 제주 직항노선이 언제쯤 재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을 경유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제주-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간 직항노선은 말레이시아의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아시아X가 주 4회 운항하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

제주도는 지난 7-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호호바루에서 현지 대형 여행사·항공사를 대상으로 제주관광설명회를 열고 제주관광 신규 콘텐츠와 무슬림 친화적 인프라를 소개했다.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가 공동 마련한 설명회에는 약 150곳의 현지 관광업체가 참여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정 관광목적지로 제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 소개한 자전거·전기

자동차 등 특수목적관광(SIT)에 대해 현지 500여개 대리점을 보유한 아이스 홀리데이스(Ice Holidays)의 미타 림 대표는 팬데믹 이후 말레이시아에 사이클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이번 설명회에서 2023년도 제주 자전거상품 출시를 확정하기도 했다. 또 설명회에 참가한 도내 관광사업체 7곳(여행사 3곳, 테마여행 콘텐츠 3곳, 호텔 1곳)이 현지 여행업체와 활발한 B2B 트래블 마트를 통해 그동안 코로나19로 단절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지며 신규 판로 창출에 나서기도 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장은 “말레이시아는 코로나 이전까지 제주-쿠알라룸푸르간 직항노선이 운항되면서 제주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국가”라며 “앞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수요를 창출하고, 하늘길이 재개되도록 노력해 제주관광 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를 찾은 말레이시아 관광객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6만8353명, 6만7877명이다. 2019년 기준 중국(107만9133명), 대만(8만7981명), 일본(8만7975명)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문미숙기자

신품종 만감류 '미래향' 품종 출원

농진청, 내년 묘목업체에 기술이전 2024년부터 보급

12월 안에 유통 가능한 만감류 '미래향'이 품종 출원을 마치고 2024년쯤부터 농가에 보급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13일 올해 새로 개발한 만감류 품종을 시범 재배한 제주시 조천읍 소재 감동찬씨 농가에서 농가와 유관기관 연구원들이 참여해 현장평가회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미래향은 현재 농가에서 재배중인 황금향과 당도가 높은 병감을 교배 육성한 품종으로, 품질이 우수하지만 껍질을 벗기기 어려워 먹기 불편한 황금향의 단점을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당도 12브릭스에 산도는 1.1% 안팎의 미래향은 겉껍질은 붉은 색을 띠고 과즙량이 풍부하고 부드럽다. 또 12월 안에 모두 유통 가능해 이른 봄까지 유통

되는 다른 만감류와 차별화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미래향 평가회를 시작으로 내년에 묘목업체에 기술이전을 마치고 2024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식감이 부드럽고 모양이 우수한데다 12월 수확하는 감귤 품종을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황금향 재배를 생각했던 농가에서 재배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김대현 소장은 “미래향 개발은 품종 갱신을 원하는 농가 요구를 만족시키고, 감귤 품종이 한정적인 12월에 모두 유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원하는 품종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메밀 수확하는 대형 들넝 13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이 메밀 수확작업을 하고 있다.

토 지 구합니다

· 제주시 ·

구좌읍 조천읍

조건

- ① 전원주택용 부지
- ② 허가득한 사업부지
- ③ 계획관리지역

베네 건축 베네 하우스

문의: ☎ 064-723-1105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酉 一 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정소

신축 / 중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연말연시 물가안정 사은행사

보급형, 경제형, 고급형, 프리미엄형중 선택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 충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신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